

국내 대학교 도서관발전계획의 효용성과 과제*

Perceived Effects and Tasks of Library Strategic Plans of Universities in Korea

장 덕 현 (Durk Hyun Chang)**

목 차

- | | |
|-----------------|---------------------------|
| 1. 서론 | 2.1 대학 내 도서관의 위상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2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여부 및 효용성 |
| 1.2 선행연구 | |
| 1.3 연구방법 | 3. 결론 |
| 2. 조사결과 | |

초 록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과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시된 계획이 실제 대학의 운영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각 대학이 수립하는 자체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실제로 대학에서 수립하는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향후의 방향성은 어떠한지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도서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제 각 대학에서 대학도서관이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별 도서관발전계획의 편성과 관련된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대학도서관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지 등 대학의 도서관발전계획의 전반적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BSTRACT

Policies has envisioned directions and identified task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ity Library Promotion Ac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s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University Library Promotion Plan, in order to put some momentum for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libraries. However, these agendas are appropriate for the actual operation of the university itself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hould be reflected in each university's own university library development plan.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the effect of the university library strategic plans established by the university itself. Further, through the survey by university libraries, the status of university libraries in each university's regulations, the level of discussions and cooperation with the library strategic plans for each university, and any substantial changes made in university libraries are analyzed.

키워드: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정책, 대학도서관발전계획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Library Policy, University Library Development Plan

* 이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연구자료집]을 발췌한 것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 ISNI 0000 0004 6477 1402)

논문접수일자: 2019년 10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19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11월 2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213-230, 2019.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4.21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 나라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R&D 관련 지표가 활용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며, 연구 경쟁력은 곧 그 나라에 존재하는 대학의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대학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요소에는 교육여건, 학문적 평판, 연구의 우수성, 연구 영향력 등이 포함되지만, 이들 중에서도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대학도서관을 들 수 있다.

대학의 연구경쟁력과 대학도서관 핵심 인프라와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면, 사서직원수, 도서관 예산, 자료구입비, 전자자료 구입비 모두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말하자면, 국가경쟁력은 대학경쟁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자료구입비를 포함한 대학도서관의 예산 및 사서직원 수 등 대학도서관의 핵심 인프라와 학술 연구 정보서비스의 역량이 대학 및 국가의 연구 경쟁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기관이 대학도서관이다. 대학도서관의 역할은 대학 구성원들의 교육과 연구 과정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대학이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대학의 연구-학습과정을 보조하는 ‘부속기관’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의 ‘기본’적인 요건의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대학의 존재와 교육, 연구, 봉사라고 하는

기본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핵심적인 요건인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지원은 너무나도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2019년 제 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연구자와 학생들의 연구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차원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획의 과제들이 실제 대학의 운영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이것이 대학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대학이 수립하는 자체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 깃들여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실제로 대학에서 수립하는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대학도서관진흥법 9조에서는 대학의 장이 교육부의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4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서 대학의 장이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과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5년마다 수립하는 발전계획에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

록 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토대로 실제 각 대학에서 대학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위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대학 내에서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의 편성과 관련한 논의들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대학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학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요소와 향후의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연구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대학도서관이야말로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의 총아로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서구의 많은 대학들은 개인이 기부한 장서로 구성된 소규모 도서관을 모태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이를 바탕으로 설립된 경우가 많다. 특히 20세기에 들어 북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대학교육의 질적, 양적 팽창에 대학도서관의 발전이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대학도서관이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학도서관의 양적, 질적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노골화되면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변화 추이나 발전전략을 논하거나 해외 대

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사례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전략계획을 비교한 연구(곽동철 2006; 이용재 2017)들이 주요 쟁점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이 집약되면서 대학도서관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되었고, 그 논리적 기반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관계 범규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한 연구(곽동철 2011)들도 생산되어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동반하기도 하였다. 이후, 관계 법령에 의하여 대학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그 성과와 과제를 논하고 지속적인 발전전략의 추진을 역설한 연구(이응봉 2014)들도 생산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연구와 교육의 기반시설로서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학도서관의 주요 환경 요인과 발전계획의 요건들을 다룬 연구들은 비교적 많이 생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대학별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성과와 효용성에 대하여 대학도서관 현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대한 대학도서관 현장의 인식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1.3 연구방법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전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도서관 89개관과 전문대 도서관 51개관, 도합 140개 도서관을 조사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4년제 대학 중 국립대학교

도서관은 32개, 사립대학교 도서관이 57개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은 각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 담당자로부터 받았다. 조사기간은 2017년 8월 한달간 진행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은 총 6개 영역으로 세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응답기관의 특성, ② 도서관 관련 학칙 개정 여부, ③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여부, ④ 도서관의 교육기본시설 인정 및 지정, 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인지도 및 기대, ⑥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여부 및 효용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2. 조사결과

2.1 대학 내 도서관의 위상

2.1.1 도서관의 교육기본시설 인정여부

대학도서관은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교육기본시설로 정해

져 있다. 교육기본시설은 동 규정의 제 2조 1항에 근거하여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요건이 되는 시설로서, 도서관 뿐 아니라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학생회관, 체육관 등이 포함되는데, 지원시설(강당, 전자계산소, 실습공장, 학생기숙사)이나 연구시설(연구용 실험실, 연구소 등), 그리고 부속시설(박물관, 산학협력단 시설, 연수원 등)과는 구별된다.

특히 동 규정의 [별표 2]에는 이 교육기본시설 중에서도 도서관에 관해서는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열람실에는 학생 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적지 않은 대학들이 이러한 교육기본시설로서의 대학도서관의 지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 부속시설로서 대학도서관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왔다.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우선 실제 대학에서 대학도서관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지 조사

<표 1> 설문지 구성

구분	설문내용	측정척도
응답기관 특성	• 대학유형	명목형
도서관 관련 학칙 개정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도서관의 학칙 개정 여부 •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의 학칙 반영 유형 • 대학도서관의 조직, 자료, 시설, 이용 관련 사항의 반영 유형	명목형 명목형 명목형
도서관의 교육기본시설 인정 및 지정	• 대학 내 도서관의 교육기본시설 인정여부 • 대학 학칙 내 도서관의 교육기본시설 지정여부	명목형 명목형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인지도 및 기대	•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인지도 •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진흥여부 •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개선방향	명목형 5점리커트 개방형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 수립여부 및 효용성	•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여부 •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효용성 (7개 영역) •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개선사항	명목형 5점리커트 개방형

하였다. 그 결과, '그렇다'는 대답이 61.4%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5.0%에 이르러 아직까지도 상당수 대학에서 도서관의 기본적인 위상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대학설립 유형별로 응답차를 분석하면, 우선 4년제 대학교 가운데에서 '그렇다'는 응답은 국공립대학교가 68.8%, 사립대학교가 78.9%로 나타나, 4년제 대학 가운데에는 사립대보다 상대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공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립대학교에서 오히려 교육기본시설로서의 대학도서관의 위상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 도서관에서 37.3%에 그치고 있어 전문대 도서관들이 대학 내에서 교육기본시설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집단간 차이는 유의수준 0.0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1.2 도서관의 교육기본시설 학칙화 여부
대학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은 학칙이다. 학칙은 대학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

의 내부적 규정으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의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편성, 입학, 학교 및 학생자치 조직 뿐 아니라 학교의 시설, 조직의 운영이나 기타 이용관계 등을 명시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배영길 2004)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학칙에 의한 교육기본시설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향후 예상되는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다양한 조직통합 등을 고려할 때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학이 학칙에 1)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기본시설로서의 대학도서관의 위상이 대학 내의 조직 위계 뿐 아니라 당해 대학의 학칙의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도서관이 학칙에 교육기본시설이 아닌 '부속시설'로

<표 2> 대학 내 도서관의 교육기본시설 인정여부(교차분석-대학유형)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	소계	χ^2 / p
그렇다	빈도	22	45	19	86	22.170 / .000**
	비율	68.8%	78.9%	37.3%	61.4%	
그렇지 않다	빈도	10	11	28	49	
	비율	31.3%	19.3%	54.9%	35.0%	
그 외의 의견	빈도	0	1	4	5	
	비율	0.0%	1.8%	7.8%	3.6%	
전체	빈도	32	57	51	140	
	비율	100.0%	100.0%	100.0%	100.0%	

** p < 0.01

지정되어 있는 곳이 62.9%로 교육기본시설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 응답 31.4%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설립 유형별로 응답차를 분석하면,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기본시설로서 학칙에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가 56.3%로 가장 높았던 반면, 사립대학교와 전문대학교는 ‘부속시설로 지정’의 응답비율이 각각 61.4%,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집단간 차이는 유의수준 0.01 내에서 유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국립대학교보다는 사립대학교에서 대학도서관을 학칙에 의한 교육기본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비율은 높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위상을 학칙에 반영하여 명시화한 경우는 사립대보다 국립대가 더 높았다. 즉, 사립대에서 도서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학칙에 명문화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교육기본시설로서의 입지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3/4 이상이 대학도서관을 부속시설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가장 미치지 않는 유형인 것을 알 수 있다.

2.1.3 대학도서관 운영, 자료, 시설 관련 사항의 학칙 반영 유형

대학의 학칙에 대학도서관의 운영과, 자료 및 시설 관련 사항이 적절하게 규정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위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동법 제 6조 2항), 대학도서관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제 9조 2항),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제 10조 2항),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제11조 2항),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제12조 2항) 등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칙에서 대학도서관의 운영, 자료 관리, 시설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학칙에 근거조항만 명시하고 도서관운영규정에 위임’한다는 대답이 5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서관운영규정에 반영(32.1%)’, ‘학칙에 반영(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대학설립 유형별로 응답차를 분석하면, 모든 대학유형에서 ‘학칙에 근거조항만 명시하고 도

<표 3> 대학 학칙 내 도서관의 교육기본시설 지정여부(교차분석-대학유형)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	소계	χ^2 / p
교육기본시설로 지정	빈도	18	16	10	44	
	비율	56.3%	28.1%	19.6%	31.4%	
부속시설로 지정	빈도	13	35	40	88	
	비율	40.6%	61.4%	78.4%	62.9%	
그 외의 의견	빈도	1	6	1	8	
	비율	3.1%	10.5%	2.0%	5.7%	
전체	빈도	32	57	51	140	
	비율	100.0%	100.0%	100.0%	100.0%	

** p < 0.01

〈표 4〉 대학도서관의 운영, 자료, 시설 관련 사항의 반영 유형(교차분석-대학유형)

구분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전문대학교	소계	χ^2 / p
학칙에 반영	빈도	5	6	4	15	
	비율	15.6%	10.5%	7.8%	10.7%	
학칙에 근거조항만 명시하고 도서관운영규정에 위임	빈도	14	36	27	77	
	비율	43.8%	63.2%	52.9%	55.0%	
도서관운영규정에 반영	빈도	12	15	18	45	
	비율	37.5%	26.3%	35.3%	32.1%	
별도 규정으로 반영	빈도	1	0	1	2	
	비율	3.1%	.0%	2.0%	1.4%	
기타	빈도	0	0	1	1	
	비율	.0%	.0%	2.0%	.7%	
전체	빈도	32	57	51	140	
	비율	100.0%	100.0%	100.0%	100.0%	

서관운영규정에 위임'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칙에 근거조항도 없이 '도서관운영규정에 반영'한다는 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공립대학교(37.6%), 전문대학(35.3%), 사립대학교(26.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 '학칙에 반영'하고 있는 곳은 국공립대학교가 1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립대학교(10.5%), 전문대학교(7.8%) 순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7%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대학도서관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학칙에 명시한 대학이 대단히 적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교차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모든 유형의 대학에서 공통적인 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2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여부 및 효용성

2.2.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여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진흥법 9조에 의해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

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단 1개관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이 '그렇다(99.3%)'고 응답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를 대학설립 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대학설립유형별로 응답차를 분석하면, 국공립대 1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조사 대상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긍정적인 답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응답값의 편차가 크지 않아 교차분석 결과는 의미가 없었다.

2.2.2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효과성

(1) 기초분석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이 수립된 대학도서관 139개관을 대상으로, 계획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총 7개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표 5〉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여부(교차분석-대학유형)

구 분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	소계	χ ² / p
그렇다	빈도	31	57	51	139	
	비율	96.9%	100.0%	100.0%	99.3%	
아니다	빈도	1	0	0	1	
	비율	3.1%	.0%	.0%	.7%	
전체	빈도	32	57	51	140	
	비율	100.0%	100.0%	100.0%	100.0%	

먼저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대학도서관의 목표와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렇다'는 대답이 75.2%('대체로 그렇다' 65.7% + '매우 그렇다' 9.5%)로 '그렇지 않다'의 2.2%('전혀 그렇지 않다' 0% + '별로 그렇지 않다' 2.2%)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대학도서관 운영의 지향점과 방향이 공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을 편성하도록 한 대학도서관진흥법의 규정이 대학들로 하여금 대학도서관의 운영방향과 현주소를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보통이다' 라는 응답은 22.6%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6〉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6〉 도서관 운영방향 정리 가능 (빈도분석)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별로 그렇지 않다	3	2.2
보통이다	31	22.6
대체로 그렇다	90	65.7
매우 그렇다	13	9.5
합계	137	100.0

다음으로 도서관에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도서관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42.3%('전혀 그렇지 않다' 5.8% + '별로 그렇지 않다' 36.5%)로 '그렇다'의 22.6%('대체로 그렇다' 20.4% + '매우 그렇다' 2.2%) 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즉, 발전계획이 내부적인 인식의 공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 등의 효과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5.0%로 나타나,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자체 발전계획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7〉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7〉 도서관 예산, 인력, 시설 개선 (빈도분석)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8	5.8
별로 그렇지 않다	50	36.5
보통이다	48	35.0
대체로 그렇다	28	20.4
매우 그렇다	3	2.2
합계	137	10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

내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에서 비전, 미션, 목표, 중점 과제 및 추진방향, 전략,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등 다양한 층위의 목표를 제시(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들은 조직 내에서 공유되고 협의됨으로써 추진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 도서관에서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서관의 운영방향(도서관의 비전, 목표, 세부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정리할 수 있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렇다'는 대답이 70.6%('대체로 그렇다' 61.0% + '매우 그렇다' 9.6%)로 '그렇지 않다'의 2.9%('전혀 그렇지 않다' 0.0% + '별로 그렇지 않다' 2.9%)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대학도서관 내에서는 발전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사서들의 주도성이 높아졌으며, 사서들이 직접 참여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입안하는 집단지성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통이다' 응답은 26.5%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8>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8> 도서관 내부 구성원의 대학도서관 운영방향 공유(빈도분석)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별로 그렇지 않다	4	2.9
보통이다	36	26.5
대체로 그렇다	83	61.0
매우 그렇다	13	9.6
합계	136	100.0

다음으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하는 과정에서 대학 본부의 예산 및 인력 지원부와 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 또는 협조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0.4%('전혀 그렇지 않다' 6.6% + '별로 그렇지 않다' 33.8%)로 '그렇다'의 25.0%('대체로 그렇다' 24.3% + '매우 그렇다' 0.7%)보다 높게 나타나, 대학의 도서관발전계획이 본부와의 협조를 충분히 확보하여 입안되고 공유된 대학의 중장기비전의 한 영역이라기보다는 도서관의 '자체' 발전계획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 응답은 34.6%로 나타나 유보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9>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9> 계획 수립에 대한 대학본부(예산, 인력)와의 논의 및 협력(빈도분석)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9	6.6
별로 그렇지 않다	46	33.8
보통이다	47	34.6
대체로 그렇다	33	24.3
매우 그렇다	1	0.7
합계	136	100.0

다음으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이 해당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46.7%('전혀 그렇지 않다' 8.0% + '별로 그렇지 않다' 38.7%)를 차지하여, '그렇다'는 대답 21.9%('대체로 그렇다' 21.2% + '매우 그렇다' 0.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1.4%로 나타나 유보적 의견이 다소 많았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은 아직 대학도서관의 자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문서일 뿐, 대

학의 전체적인 발전방향 내에 중요한 아젠다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보통'이라는 대답은 대학도서관 장서 확충 등과 같은 구색 갖추기 형식의 항목들만 명시되어 있을 뿐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의 내용이 대학의 발전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는 반응이었다.

대학 도서관은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대학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도서관 발전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0>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반영(빈도분석)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1	8.0
별로 그렇지 않다	53	38.7
보통이다	43	31.4
대체로 그렇다	29	21.2
매우 그렇다	1	0.7
합계	137	100.0

다음으로 각 대학에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결과 및 해당연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면 국가 단위의 대학도서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8.0%('전혀 그렇지 않다' 10.2% + '별로 그렇지 않다' 27.7%)로 '그렇다'의 16.8%('대체로 그렇다' 15.3% + '매우 그렇다' 1.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45.3%로 나타나 유보적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학도서관 현장에서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자체의 발전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이 실질적인 대학도서관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은 결국 최근 우리나라 대학의 어려운 사정과 대학도서관의 입지가 지속적으로 좁아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1> 시행계획·결과의 교육부 제출시 대학도서관 정책 반영 기대(빈도분석)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4	10.2
그렇지 않다	38	27.7
보통이다	62	45.3
그렇다	21	15.3
매우 그렇다	2	1.5
합계	137	100.0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이후 도서관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36.8%('전혀 그렇지 않다' 7.4% + '별로 그렇지 않다' 29.4%)로 '그렇다'는 대답 27.2%('대체로 그렇다' 26.5%

<표 12>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후 도서관 변화여부(빈도분석)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0	7.4
그렇지 않다	40	29.4
보통이다	49	36.0
그렇다	36	26.5
매우 그렇다	1	0.7
합계	136	100.0

+ '매우 그렇다' 0.7%)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통이다' 응답은 36.0%로 나타나 자체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효과에 대하여 '아직은 기능할 수 없다'거나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한다'는 유보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2) 종합분석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도서관 운영방향 측면에서의 인식공유 부분에서 가장 효용이 높았던 반면,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도서관의 발전계획의 반영 여부 등 대학본부의 인식 제고와 협력 측면의 효용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13>에 나타낸 바와 같다.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리커트 5점 척도를 평균으로 환산하여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의미한다. 단, 100점 환산 점수는 1~5점의 점수를 각각 0점, 25점, 50점(보통), 75점, 100점으로 치환하여 분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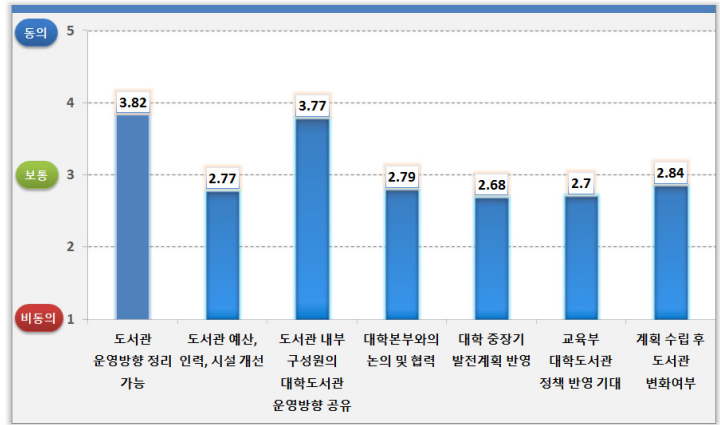
분석결과, '도서관 운영방향 정리 가능'이 3.82점으로 가장 높고, '도서관 내부 구성원의 대학도서관 운영방향 공유'가 3.77점으로 나타나 보통수준(3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후 도서관 변화여부(2.84점)', '계획 수립에 대한 대학본부와의 논의 및 협력(2.79점)', '도서관 예산, 인력, 시설 개선(2.77점)', '시행계획·결과의 교육부 제출 시 대학도서관 정책 반영 기대(2.70점)',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반영(2.68점)' 순으로 나타났고 모두 보통수준(3점) 이하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이어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효용성에 대하여 대학설립유형별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서관 운영방향 정리 가능' 항목은 국공립대가 4.0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립대(3.79점), 전문대(3.71점)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는 국공립대와 전문대간 차이만 유의수준 0.05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효용성(기술통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100점환산
1) 도서관 운영방향 정리 가능	137	3.82	.617	70.6
2) 도서관 예산, 인력, 시설 개선	137	2.77	.918	44.2
3) 도서관 내부 구성원의 대학도서관 운영방향 공유	136	3.77	.655	69.3
4) 계획 수립에 대한 대학본부와의 논의 및 협력	136	2.79	.914	44.7
5)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반영	137	2.68	.923	42.0
6) 시행계획·결과의 교육부 제출 시 대학도서관 정책 반영 기대	137	2.70	.902	42.5
7)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후 도서관 변화여부	136	2.84	.929	46.0



〈그림 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효용성(기술통계)

〈표 14〉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효용성(분산분석-대학유형)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1) 도서관 운영방향 정리 가능	국공립(a)	31	4.06	.680	3.328	.039*	[Scheffe] a > c
	사립(b)	57	3.79	.590			
	전문(c)	49	3.71	.577			
	전체	137	3.82	.617			
2) 도서관 예산, 인력, 시설 개선	국공립(a)	31	2.87	.991	2.544	.082	-
	사립(b)	57	2.56	.846			
	전문(c)	49	2.94	.922			
	전체	137	2.77	.918			
3) 도서관 내부 구성원의 대학도서관 운영방향 공유	국공립(a)	31	4.10	.700	5.861	.004**	[Scheffe] a > b a > c
	사립(b)	57	3.74	.552			
	전문(c)	48	3.60	.676			
	전체	136	3.77	.655			
4) 계획 수립에 대한 대학본부와의 논의 및 협력	국공립(a)	31	2.68	.909	.313	.731	-
	사립(b)	56	2.84	.930			
	전문(c)	49	2.80	.912			
	전체	136	2.79	.914			
5)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반영	국공립(a)	31	2.55	.925	1.170	.314	-
	사립(b)	57	2.61	.881			
	전문(c)	49	2.84	.965			
	전체	137	2.68	.923			
6) 시행계획·결과의 교육부 제출시 대학도서관 정책 반영 기대	국공립(a)	31	2.90	.978	1.014	.366	-
	사립(b)	57	2.65	.813			
	전문(c)	49	2.63	.951			
	전체	137	2.70	.902			
7)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후 도서관 변화여부	국공립(a)	31	3.16	.860	2.485	.087	-
	사립(b)	57	2.74	.877			
	전문(c)	48	2.75	1.000			
	전체	136	2.84	.929			

*p < 0.05, **p < 0.01

정리하면, '도서관 예산, 인력, 시설 개선' 항목은 전문대가 2.9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공립대(2.87점), 사립대(2.56점)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도서관 내부 구성원의 대학도서관 운영방향 공유' 항목은 국공립대가 4.1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립대(3.74점), 전문대(3.60점)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는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국공립대와 전문대간 차이가 유의수준 0.05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과 규모, 그리고 지원의 차이가 도서관 내의 운영방향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획 수립에 대한 대학본부와의 논의 및 협력' 항목은 사립대가 2.8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문대(2.80점), 국공립대(2.68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반영' 항목은 전문대가 2.8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립대(2.55점), 사립대(2.61점) 순으로 나타남.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시행계획·결과의 교육부 제출 시 대학도서관 정책 반영 기대' 항목은 국공립대가 2.9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립대(2.65점), 전문대(2.63점)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후 도서관 변화여부' 항목은 국공립대가 3.1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문대(2.75점), 사립대(2.74점)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표 15>에 나타낸 바와 같다.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효용성 측정변인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

<표 15>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효용성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구분	a	b	c	d	e	f	g
1) 도서관 운영방향 정리 (a)							
2) 도서관 예산, 인력, 시설 개선 (b)	.239**						
3) 도서관 내부 구성원의 대학도서관 운영방향 공유 (c)	.521**	.303**					
4) 계획 수립에 대한 대학본부와의 논의 및 협력 (d)	.234**	.486**	.355**				
5)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반영여부 (e)	.210*	.319**	.095	.487**			
6) 시행계획·결과의 교육부 제출 시 대학도서관 정책 반영기대 (f)	.275**	.448**	.282**	.450**	.378**		
7)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후 도서관 변화여부 (g)	.388**	.599**	.413**	.441**	.371**	.551**	

*p < 0.05, **p < 0.01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체로 모든 항목에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간의 관계성 강도는 '도서관 예산, 인력, 시설 개선' 변인과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후 도서관 변화여부' 변인 사이에서 가장 강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도서관 운영방향 정리' 변인과 '도서관 내부 구성원의 대학도서관 운영방향 공유' 변인간의 관계가 강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대학의 자체 도서관발전계획이 어느정도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2.3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의 개선사항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의해 도서관에서 개선된 사항과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개방형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1) 국립대 도서관

조사결과를 대학도서관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국립대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정책 및 경영 측면에서 대학 차원에서 도서관 미래종합발전 모델 및 수행전략 연구 정책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도서관의 운영방향을 정리할 수 있었고, 도서관 변화에 따른 서비스를 개발하여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다수의 대학도서관에서 이번 기회가 연구성과 및 연구동향 분석 서비스 등 대학의 연구성과를 수집, 분석, 서비스하는 전문 연구지

원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응답이 많아, 대학도서관이 특히 연구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대학내에서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응답은 국립대학교 도서관에서 주를 이루었는데, 이들 대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기관의 현재 역량 및 각종 현황을 분석하고, 비전 및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는 대답도 많았다.

상당수의 국립대학교 도서관은 자체 발전계획 수립 이후 도서관 리모델링 및 신축사업을 통한 시설 및 정보화 분야와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신축이 진행되거나, 법규에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도 다수 있었고, 적어도 열람실 이용 환경 개선 등 이용자 서비스 측면의 개선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자료구입 예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도서관 서비스, 교수학습 지원 및 이용자 서비스 강화에 치중하여 전자자료 이용 확대와 문화행사 등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대답한 도서관도 많았다. 특히,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쉽지 않았는데, 법이 발효되고, 자체 발전계획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이 설정되면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인식이 많았다.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학 도서관의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대학 구성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측면도 있다는 응답이 많

았다. 한편으로는 대학도서관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반면,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이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추진과제와 대학도서관진흥법의 발전계획 포함사항을 고려한 5개의 필수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하므로(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대학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목표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2) 사립대 도서관

반면, 사립대 도서관들의 경우 도서관 경영 측면에서 구체적인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을 연구하고 수립함으로써 도서관 발전계획에 의거한 도서관 경영 방침을 정하고 대학도서관 진흥법 기준 충족을 위한 관련 통계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된 것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대답하였다. 즉, 도서관 발전계획에 따른 업무 진행과 추진 실적 제출에 따라 분기별 업무 점검을 진행하는 등 국립대에 비하여 조직화된 발전계획 추진 과정이 관찰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사서들이 도서관의 전체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대학도서관 발전 방향성 정립을 통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검토함에 따라, 대학도서관 운영의 실행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대답이 많았다. 사립대의 경우에도 도서관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그리고 시설 및 서비스, 지역 연계 등에서 전반적 개선 효과가 있었던 반면, 인력 측면에서는 도서관 직원의 교육이 강화되고, 도서관 직원 중 사서직 비율이 증

가한 효과는 있었으나, 일부 대학에서 정규직 인력 충원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인력측면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도서관이 많았다.

학칙에 도서관 관련 내용이 반영된 도서관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각종 위원회에서 도서관 관련 내용들이 의제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대답도 있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술정보원장 또는 도서관장이 교무위원에 포함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총장이 맡거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을 총장이 임명하는 등 대학도서관의 위상이 상승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한다.

직원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대학본부에 도서관 인원 요청 및 장서확보 요구를 제기할 때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내에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 대학 본부의 타부서와의 계획된 논의와 협조요청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시설확충에 대한 대학의 이해를 위해 대학 당국에 도서관 관련 예산, 환경 개선 등의 요구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반면, 한계점으로 가장 중요한 예산, 인력, 시설에서 현재까지 변화가 없고, 향후 변화가 있더라도 대학이 처해 있는 환경과 대학자체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으로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이 도서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는 적고, 추진해야 될 업무만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대답도 있었다. 아울러 필수과제와 선택과제가 정해져 있는 종합계획 수립의 현재 방식은 각 대학의 특성과 성격,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업무 자체가 도서관 현장 관계자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필요성의 공감대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책임을 사업주체인 도서관이 아니라 대학에서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즉, 도서관의 자체 계획만으로는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학본부가 예산 등에 대해 상향된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에는 대학본부가 의도적으로 발전계획에 구조조정 안을 포함하여 데이터를 하향화 하는 사례들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사립대의 경우는 대학 도서관간 전통적인 협력서비스(상호대차, 종합목록 등)를 넘어, 대학이 도서관에 중복투자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인 협력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으며, 실무차원의 업무계획보다 대학 내 도서관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인센티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한편으로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지표와 상관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대학이 등한시 하는 경향에 따라 대학도서관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기존 지표들을 수정하는 방안 또는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이 적용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도서관 예산, 인력 및 시설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열악한 도서관 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학의 재학생수, 장서수 등에 비례한 사서 배치 확대 및 정규직사서 추가 확보를 위하여

직원의 기준을 학칙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또한, 상당수 대학도서관의 경우, 장서보존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자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3) 전문대 도서관

조사과정을 통틀어 전문대 도서관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도서관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 많았다. 대체로 각 대학에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하는 것보다 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기관평가인증 등과 같은 대학 차원의 평가항목에 도서관 평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의 각종 사업 등과 연계되어야 인력이 부족한 전문대학의 경우 발전계획의 내용이 실천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정량지표 부문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정량적 기준에 대한 강제력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문대 도서관으로부터 받은 응답의 공통적인 특징은 발전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대한 상벌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도서관 지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계획의 입안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3. 결 론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

장 중요한 기관이 대학도서관이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도서관의 학술연구 정보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표는 높은 반면 대학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령 인구의 감소와 그로 인한 대학 재정난의 악화, 정보자원의 양적 확대와 급격한 가격 상승 등은 대학도서관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 당국은 대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시행하고, 각 대학의 본부에 대학도서관을 진흥하고 지원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즉, 대학은 법에 의하여 자체 대학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을 대상으로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이 대학도서관진흥법의 당초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발전계획이 현장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된 바 없다. 특히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이 대학도서관의 열악한 인력, 시설, 자료, 그리고 재정 등을 상향화하는 기제가 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의 대학도서관발전계획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실제적인 인식을 분석하고 남은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도서관들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대학도서관들이 자체적인 발전 방향성을 정립하고 대학도서관 운영의 실행력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 내부적으로 발전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고,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반면, 인력 측면에서의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대학이 처해 있는 환경과 대학자체의 구조조정 정책의 와중에서 대학도서관의 존립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계획은 계획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의 실천은 여전히 어려우며, 전반적인 사서 수 감소로 인해 발전계획을 실행할 인력도 부족한 상태라, 개선 계획보다는 유지계획이 걸맞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은 국가적 대학도서관 진흥의 초기 단계로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최소한 도서관의 현 위치를 정리하고 보완점을 명시하여 향후 방향성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즉, 현장으로부터의 인식과 과제가 실천을 담보할 수 있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가 정책 지원의 초기인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정책의 현재를 정리하고 점검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1] 광동철. 2006. 대학도서관의 변화 추이 및 전략적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225-246.
- [2] 광동철. 2011.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 제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145-162.
- [3] 배영길. 2004. 대학의 학칙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5(1): 297-332.
- [4] 이용재. 2017. 국내외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과 전략적 계획 비교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1): 61-66.
- [5] 이응봉. 2014.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상 분석과 문제점 진단. 『사회과학연구』, 25(4): 227-249.
- [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6. 『통계로 보는 세계대학평가 순위와 대학도서관의 경쟁력』.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분석 및 미래 발전 방안』.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8] Brettle, Alison and Michelle Maden. 2015. What evidence is there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trained and professionally registered library, information and knowledge workers? The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London, UK.
- [9] Sullivan, Brian T. 2011. Academic Library Autopsy Report, 2050.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ack, D. C. 2006.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trategic Development & the Changes in Academ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4): 225-246.
- [2] Kwack, D. C. 2011. "A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Regulations for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145-162.
- [3] Bae, Y. K. 2004. "A Study on the School Regulations of the University-centering on the Legal Status & Characters." *Public Law Journal*, 5(1): 297-332.
- [4] Lee, Y. J. 2017. "A Comparative Study on Development Plans and Strategic Plans of Academic Libraries in Korea and Oversea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61-66.
- [5] Lee, E. B. 2014. "Analysis of Actual State and Diagnosis of Problems in Korea Academic Libraries." *Social Sciences Research*, 25(4): 227-249.